긴급진단 **돈선거 온상 조합장 선거**

억대 연봉에 유지 대우 이권사업도 개입 '막강'

농·수·축협의 수장을 뽑는 조합장 선거의 혼탁 양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금품·향응 제공 사례가 적발되고 있지만 불법 선거운동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은 그 정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심하다. 광주지검이 올들어 지난 8월초까지 조합장 선거과정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구속기소한 인원은 7명으로 전국 구속자의 3분의 1에 육박했다. 위법행위로 고발·수사의뢰된 사례 가운데 76%는 금품·향응제공 등 기부행위성 범죄다.

도대체 조합장이 어떤 자리이며, 어느 정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길래 이처럼 불·탈법을 일삼으면서까지 당선을 위해 '올인'하는 것일까.

농협 조합장에게는 조합 내 인사와 업무집행에 대한 결정권이 주어진다. 일반 중소기업의 대표와 비슷한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다. 문제는 상당한 규모의 신용과 경제사업을 운용하면서 조합장이 각종 이권에 개입할 여지가 크다는 점이다.

면(面) 단위 조합의 연간 사업규모는 평균 500억~1천억원이며, 읍(邑)·동(洞) 단위 조합은 1천억원 이상이다. 연간 사업규모는 해당 조합의 당해년도 사업예산 규모를 말한다.

특히 기능·계약직의 경우 이사

❶ 광주·전남 실태
❷ 기본이 3억
❸ 조합장이 뭐길래
❹ 대책은 없나

회를 거치지 않고 직원을 뽑을 수 있어 조합장이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잇속'을 챙길 수 있다.

또 임기 4년(연속 3선 가능)의 조합장은 연봉만 최소 5천만원(연

군수·도의원 등 정계진출 발판 기능·계약직 채용도 마음대로

간 사업규모 500억원 미만의 조합 평균)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성과급과 퇴직금 등을 합하면 조합장의 연간 평균소득은 최고 1억원을 훌쩍 넘어선다.

경조사비의 경우도 조합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조합 측에서 집행해준다는 게 전·현직 조합장들의 설명이다. 비용은 한 해 평균 적게는 1천만원, 많게는 2천만원 가량을 쓴다. 조합장의 입장에선 자신의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선심을 쓸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조합장에 당선되면 억대 연봉 대열에 합류하면서 지역사회 유지로서 신분상승이 가능하다. 특히 군수나 도의원 등 정치 입문을 꿈꾸는 인사들이 사전 관문으로 조합장 선거를 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역에서 치러지는 각종 행사에 조합 대표로 참여, 소신을 펼칠 수 있다는 점도 조합장이 각광받는 이유로 꼽히고 있다.

전남의 A농협 조합장 B씨는 "연봉도 연봉이지만 지역사회에 살면서 조합장 당선은 곧바로 신분상승으로 이어지는데, 누가 이를 마다하겠느냐"며 "도내 일부 합병된 조합의 경우 군수 또는 도의원 선거를 위해 조합장 선거에 뛰어든 이도 있다"고 말했다.

전남의 C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D씨는 "인사채용 등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조합장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많다. 마음만 먹으면 이권사업에까지 개입할 수 있다"며 "조합장에 출마하면 수억원이 드는데, 재임 중 연봉 만으로 이를 다 채울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장흥, 동학혁명 115주년 길놀이 지난 7일 동학농민혁명 제115주년 기념식에 앞서 주민들과 유족들이 장흥읍내를 돌며 길놀이를 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장흥 석대들 전적지가 정읍 황토현과 공주 우금치, 장성 황룡에 이어 지난 5월 4번째 사적으로 지정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흥=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여대생 성폭행 미수범 잡고보니 교사

광양경찰, 원룸촌 침입 30대 7개월만에 검거

대학가 원룸촌에서 여대생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려 한 30대 현직 교사가 범행 7개월여 만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광양경찰은 8일 원룸에 거주하는 여대생을 성폭행하려한 광양 모 고등학교 교사 A(32)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2일 새벽 2시께 광양시 광양읍 모 원룸 2층 B(여·21)씨의 집에 베란다 가스관을 타고 침입해 잠자고 있던 B씨를 흉기로 위협,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흉기를 놓고 누워있는 동안 현관문을 열고 달아나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속옷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양말을 양손에 끼어 지문을 남기지 않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의 집은 여대생의 집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었다.

경찰은 범행이 일어난 장소와 시간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용의자를 3천여명으로 압축한 뒤 족적과 휴대전화 기종 등을 대조해 4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전세버스조합 간부·공무원 짜고 체전 선수단 수송비 억대 횡령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전국체전과 소년체전 참가선수단의 전세버스 운송비를 과다청구한 뒤 이를 착복한 전남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박모(58)씨 등 간부 2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공무원 김모(52)씨에 대해서는 전남도에 비위사실을 통보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5월에 개최한 전국체전과 소년체전 참가선수단의 선수운송 용역을 전남도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뒤 운송비를 과다청구해 1억868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선수단 조기 철수 등으로 차량 운행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운행한 것처럼 75대분을 과다 청구해 전남도로부터 전세버스 한 대당 53만~56만씩 총 3억4천여만 원을 수령한 뒤 회원사에는 한 대당 30만~35만씩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운송비용을 과다 청구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채 정상운행한 것처럼 허위조서를 작성, 예산을 부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 양동 보람병원 불 환자 160여명 대피 소동

인명피해는 없어

8일 오후 3시58분께 광주 서구 양동 보람병원 지하1층 식당에서 불이나 입원 환자 16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불은 식당 천장에서 시작돼 식당 내부 60㎡를 태운 뒤 20여분만에 진화됐으며 환자 대부분은 불이 나자마자 밖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소방관과 구조대원 82명을 투입, 미처 밖으로 나오지 못한 노인 환자 30여명을 옥상으로 대피시켰으나 불은 크게 번지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아무도 없는 식당 천장에서 불이 난 점으로 미뤄 전기합선이 화재 원인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주말·휴일 교통사고 잇따라 2명 숨지고 30여명 부상

8일 오전 5시50분께 함평군 손불면 산남리 앞 도로에서 1t 화물차가 배수로로 굴러 떨어지면서 전복됐다.

이 사고로 트럭 화물칸에 타고 있던 노모(여·67)씨가 숨지고, 함께 타고 있던 홍모(여·67)씨 등 8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노씨 등은 트럭을 타고 인근 밭으로 일하러 가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7일 오후 7시30분께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고서분기점 인근에서 승객 24명을 태운 관광버스와 견인차가 추돌했다. 이 사고로 견인차가 전복돼 견인차 운전사 A(50)씨가 숨졌으며, B(58)씨 등 버스 승객 20여명이 다쳐 인근 병원 6곳으로 옮겨졌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신병비관 60대 병원서 투신

7일 오후 2시께 광주시 동구 모 대학병원 3층 옥상에서 김모(여·62)씨가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딸(31)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20여년 전부터 당뇨병을 앓아온 김씨가 신병을 비관해 8층 입원실 창문을 열고 투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만취 20대, 야구선수집 들어가 행패

쌍나팔

○…만취상태에서 이웃에 사는 프로야구 선수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잘못 알고 들어가 소란을 피운 20대 남성이 경찰서행.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이모(28)씨는 8일 새벽 5시20분께 광주시 서구 내방동 모 아파트에 사는 프로야구 선수 A(30)씨의 집에 들어가 20여 분간 행패를 부렸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만취상태에서 잠금장치가 풀린 A씨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이를 본 A씨가 "누구냐"며 다그치자, 되레 "너는 누구냐. 우리 집에서 자냐"며 A씨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고.

○…이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A씨의 집을 내 집으로 착각했다"며 선처를 호소.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